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월 24일(주일) 제1329호

“열방이 소망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

1월 30~31일, 2월 6~7일 선교헌금작정 ‘선교헌금작정서’ 제출하거나 온라인 참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됐던 2021년 선교헌금작정이 ‘열방이 소망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를 주제로 1월 30~31일과 2월 6~7일 실시된다.

선교헌금작정은 예배당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 클릭)에서 동참할 수 있다.

선교헌금작정서나 온라인 선교헌금작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규헌금’이나 ‘봉투헌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금액, 전자서명을 입력해야 한다. 선교헌금 증액을 원하는 성도는 2000선교본부에 문의해야 한다.

지난해 온누리교회는 총 114억 원을 선교에 사용했다. 선교사 후원

63억(55%), 선교사역비 21억(18.8%), 기관지원 9억(8%), 시설운영비 8억(7.6%), 행정운영비 3억(3.2%), 코로나19 긴급지원 7억(7%) 등을 지출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할 예정이다. 현지 이양, 현지인 선교사 발굴, 현지 교회 및 단체와 협력, 비대면 플랫폼 구축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철수한 선교사 케어에도 집중한다. 선교지 입국이 제한될 때는 국내 이주민 사역(남부지방 및 농촌) 등 새로운 사역에 선교사들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교헌금 지출 내역과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2000선교본부 홈페이지(2000missi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온누리교회 선교는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한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

기를 보내고 있지만 선교사들과 선교지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

재능기부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 김영선 기자

은혜와 간증 쏟아지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생명나눔의 기적(헌혈)

온누리교회 공동체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채널, 온누리신문에는 ‘90일의 기적’ 은혜와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로 참여하면 된다. 예배당 예배로도 참석할 수 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은 매일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거나 ‘90일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시청하면서 완독하는 과정이다.

새벽기도회 출석 인증은 새벽기도회 전후 15분 동안(오전 5시 45분~6시, 6시 45분~7시) 단체대화방에 ‘십자가 아이콘’을 한 번만 올리면 되고, 성경일독은 단체대화방에 ‘한 줄 소감’을 올리면 된다. 완주한 성도에게는 아이스쿨 학점이 부여된다. 둘 다 완주하면 4학점, 성경일독만 완주하면 2학점을 준다. 새벽기도회 65회 중에서 60회, 성경일독은 4월 10일까지 완독하면 인정해준다.

김영철 성도(양지 온누리교회)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로 해소하고 있다”고 했고, 최영일 성도(하나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지난해 겪었던 어려움을 위로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김의영 권사(서초A공동체)는 “성경일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했고, 임요은 성도(부천 온누리교회)는 “말씀을 듣는 은혜에 흠뻑 빠져 있다”고 간증했다<관련기사 3면>.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는 현재까지(1월 21일 기준) 377명이 동참했다. 가까운 헌혈소를 방문해서 헌혈하고,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주소, 연락처’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 또는 문자메시지(010-2004-4800)로 전송하면 된다. 성도들의 인증 사진과 한 줄 소감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매일 업로드 된다. 온누리신문에도 실린다<관련기사 4면>.

1월 23일(토)부터는 ‘90일의 기적 토요새벽기도회’가 시작됐다.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에서 생중계된다. 90일의 기적 토요새벽기도회는 대학청년부가 섬긴다. / 정현주, 홍하영 기자

온누리교회 예배당 예배 재개

예배예약시스템과 전화 예약 필수

지난 1월 18일(월)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당 예배가 재개됐다.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예배예약시스템과 전화로 예배당 예배를 예약하고 참석할 수 있다. 예배예약시스템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면 된다. 등록교인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바코드를 발급받은 다음 예배예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미등록교인은 아이스쿨

회원가입을 하면 지급되는 1회용 바코드로 예배예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전화 예약은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전화 예약은 등록교인만 할 수 있다.

예배당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은 서빙고 345명, 양재 295명, 부천 100명, 수원 69명, 대전 110명, 남양주 30명, 평택 30명, 인천 80명, 강동 50명, 양지 60명이다. / 정현주, 김영선 기자

CGNTV,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 출시

1월 28일과 2월 4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CGNTV가 2월 15일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Fondant)’을 정식 출시한다.

지난 1월 21일(목) ‘퐁당’ 출시를 앞두고 이태원 몬드리안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CGNTV 이사장)는 “뉴미디어 시대 한국 교회

가 OTT 플랫폼 ‘퐁당’을 활용해서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로 하나 되고,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 유지를 도왔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관련기사 6면>.

한편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 출시 설명회를 1월 28일과 2월 4일 온라인(Zoom, 유튜브)으로 실시한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2021년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참여자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날이 갈수록 기도와 은혜가 깊어진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참가자들의 고백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참가자들의 고백이 정말 아름답다. 날이 갈수록 기도와 은혜가 깊어진다는 고백이 눈물겹기도 하다.

김영철 성도(양지 온누리교회)는 세 이레 기도회와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예배의 갈급함을 회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지난 연말 세 이레 기도회에서 그 갈급함을 조금씩 해소하다가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혜 성도(대전 온누리교회)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지난해 암 투병을 하면서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정말 힘들었는데 지난 연말 세 이레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심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를 한다고 했을 때 건강 문제로 참가를 망설였는데 그래도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딸과 매일 저녁 가정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최영일 성도(하나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

“제가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가는 쓰러지고 말겠다. 영적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 아침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지 말자! 더 열심히 참가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말씀을 요약해서 공동체 단체채팅방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눈물부터 납니다. 지난해 겪었던 어려움을 위로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만협 다락방장(강서공동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

“어느 날 일어나보니 예배시간이 지나있었습니다. 늦게라도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배에 늦으면 ‘나는 실패했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좋지만 늦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을 더 아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으로 하나님과 가까워 지고 있는 한만협 다락방장(위)과 김의영 권사(아래).

날마다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김의영 권사(서초A공동체)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면서 그 재미나던 TV와 영화가 시시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TV를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특히 영화를 많이 봤는데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 재미나던 영화가 갑자기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성경일독을 하면서 TV와 영화 등 미디어에 대한 마음을 끊고, 그 대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얼마 전 제가 딸을 오해해서 말다툼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딸과 빨리 화해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딸과 화해했습니다. 딸도 저의 솔직하고 빠른 사과에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김의영 권사는 성경일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경필사에도 도전하고 있다.

“저녁에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자를 틀리지 않을까 한 자 한 자 집중해서 적고 있습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과 성경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임요은 성도(부천 온누리교회)는 아들만 셋(고1, 중3, 초6) 있다. 그녀에게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은 아들 셋 양육으로 지치고 피곤한 몸과 영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들 세 명과 종일 집에서 붙어있으면서 너무 바쁘고 힘들더라고요. 영적으로도 침체되고요. 새해가 되면서 무조건 성경일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매 아침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이 시작되어서 남편과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임요은 성도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 성경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면서 말씀이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큰일을

이뤄나가시고, 복잡한 율법을 주신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특히 귀로 듣는 말씀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 정현주, 김영선 기자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한 줄 소감’ (1월 15일~20일까지)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모세와 아론도 잠깐의 화를 참지 못함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불평과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아닌,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가길 기도한다.
/ 윤정희 성도(수원 온누리교회)

· 궁극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순종으로 순간마다 들어오는 불신앙을 내쫓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과 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아멘.
/ 김미선 성도(인천 온누리교회)

· 삶은 반복이다. 하나님은 가르침과 노래와 징계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여 기억하게 하신다.
/ 이우경 장로(일산공동체)

·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세상 풍속을 쫓아가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박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 정영순 권사(가정사역공동체)

· 끊임없이 불순종한 백성들의 모습은 애굽을 아직도 떠나지 않은 나의 모습입니다.
/ 김민자 성도(이수공동체)

· 날마다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님을 찾아 만나는 기쁨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 이춘주 권사(여의도공동체)

·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과 겸손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최용준 집사(여의도공동체)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려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셨을 때에는 그 땅의 가치를 찾아내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길 원합니다.
/ 송현진 성도(강남D공동체)

·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시대에도 적용되어,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이혁주 형제(평택 대학청년부)

· 모세의 출생과 죽음까지 모든 순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은혜가 제 삶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박지영 성도(일산공동체)

· 친히 앞서 가시고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 조수현 성도(일산공동체)

· 모세가 죽음 앞에서 “내가 여호와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라고 노래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김월욱(경기A공동체)

· 인생 최고의 복인 ‘구원’을 받았으니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 어원경 성도(서빙고공동체)

· 규칙을 주신 것은 욕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바로잡고 가이드해 주시려는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 장창섭 형제(W청년부)

·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를 힘쓰는 남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 한연순 성도(서빙고공동체)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자녀들과 함께 ‘생명나눔의 기쁨’

쌍둥이 아들과 함께 ‘김지훈 순장’, 큰딸과 함께 ‘서광열 집사’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이 시작됐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주축이다. 특히 생명나눔의 기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쌍둥이 아들과 함께 헌혈의 집을 방문한 김지훈 순장(남양주 온누리교회, 왼쪽). 큰딸의 생애 첫 헌혈을 함께한 서광열 집사(경기A공동체, 오른쪽).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가족과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둘만의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헌혈소를 찾는 부부가 있고, 헌혈하면서 색다른 추억을 쌓는 형제자매도 있다. 자녀들에게 생명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하여 헌혈의 집을 찾는 부모들도 있다.

김지훈 순장(남양주 온누리교회)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쌍둥이 아들의 손을 잡고 헌혈의 집을 방문했다.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헌혈을 할 수 없지만, 피를 나눔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교육하는데 이보다 좋은 교육 현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나누는 것을 잘 모르고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피를 나눔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과 나눔이 얼마나 뜻 깊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빠의 헌혈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쌍둥이 아들이 “아빠 안 아파?”, “아빠 얼마큼 아파?”라고 계속 질문을 던졌다. 두껍고 긴 바늘이 아빠의 팔을 뚫고 들어가자 발을 동동거리며 곁을 맴돌았다. 김지훈 순장이 아들들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다.

“바늘이 들어갈 때 잠깐 따끔한데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어느 교회 권사님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응급으로 피가 필요해서 아빠가 헌혈해서 드린 적이 있어. 아빠 피로 그 권사님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되었어. 또 아빠의 친한 친구 어머니가 큰 수술을 앞두고 헌혈증이 필요했는데 아빠가 그동안 모아둔 헌혈증을 모두 드린 덕분에 수술을 잘 마쳤어.”

아빠의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리고 김지훈 순장이 헌혈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작은아들이 놀라운 고백을 했다.

“처음에는 헌혈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떨던 아이가 ‘아빠보다 더 많이 헌혈 할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도 자녀들과 함께 헌혈의 집을 방문할 것입니다.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 동참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헌혈해보십시오. 분명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서광열 집사(경기A공동체)는 큰딸과 함께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했다. 헌혈을 꾸준히 해오던 서광열 집사의 모습을 지켜본 큰딸이 “인생 첫 번째 헌혈을 아빠와 꼭 함께 하고 싶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항상 아내와 헌혈을 하러 다녔는데 이번에는 큰딸과 함께 왔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다 된 큰딸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생명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헌혈을 마치고는 큰딸과 함께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헌혈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딸이 이번에 난생처음 헌혈을 해서 긴장되고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건강관리 더 열심히 해서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헌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헌혈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도 했고요. 앞으로도 자녀들과 뜻 깊은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광열 집사 가족은 헌혈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광열 집사가 수혈을 받고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서광열 집사는 몇 년 전 위십이지장 궤양으로 많은 양의 피를 수혈 받았다. 체내 혈액량이 얼마 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때 작은딸이 가져다준 헌혈증이 큰 도움이 됐다.

“저도 수혈을 받아 생명을 건진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 살아나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헌혈을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빛진 생명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꾸준히 헌혈했습니다. 아내 양요순 권사는 지난해 응급수술 들어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아둔 헌혈증을 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헌혈에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광열 집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온 가족과 함께 하는 헌혈을 적극 추천했다.

“헌혈은 혼자 할 때도 기쁨이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하면 그 기쁨과 은혜가 배가 됩니다. 헌혈 경험을 나누는 일은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아직 헌혈을 망설이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적극 추천합니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자 소감

“약 10년 만에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 박준석 성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

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제 피가 아까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알려 주신 사랑을 나누니 오히려 제 안에 사랑이 넘치는 복된 경험을 한 하루입니다.”

/ 이동령 성도

“처음하는 지정 헌혈을 너무 기쁘게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간 이식을 받는 환우분이 꼭 치유 받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과 새 생명을 살리는 헌혈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하은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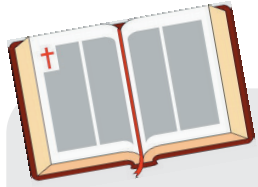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듯, 육체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을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기쁘고 설레며 뜻 깊은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 서은하 성도

헌혈, 이것이 궁금합니다

“‘기프트카 레드카펫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헌혈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헌혈의 집까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프라이빗 픽업 서비스’와 원하는 장소에서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헌혈할 수 있는 ‘프라이빗 헌혈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대한적십자사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가장 먼저 서술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가 곧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지와 연결됩니다. 과도하게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늘 옳고 다른 사람은 늘 틀렸다고 생각하는 자기주장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과도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정반대로 자신은 아무 쓸모가 없고 이 사회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자기비하, 자기 거부, 자기 경멸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은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을 것이고, 실패를 거둔 사람은 자기 거부나 자기비하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만큼이나 자기비하도 자기 사랑입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대해야 할 자기 자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은 과도한 자기 확신이나 자기 거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면에 열등감이 숨어있습니다. 열등감이 표출되는 사람은 이면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고, 교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복음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복음 아래서 우리 자신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대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그 자아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사멸

사람의 추천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고린도후서 3:1~6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 하나님 향하여 가질 수 있는 충분함이
고난, 시련, 시험,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합니다.”

되어야 할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격 없다고 공격당하는 사도 바울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시험해보는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된 음모와 왜곡된 사실로 모함할 때입니다. 어떤 갈등에 휩싸일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옛 자아의 영향력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자아가 여러 공격을 통해서 자기 거부, 자기비하, 자기 경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함과 왜곡된 소문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라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추천서가 사도 바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명망 있고, 평판 좋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신분과 능력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당시 교회도 추천서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일정 기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사도’라는 직임을 부여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사도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구비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해줄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이 사역을 통해 나타난 분명한 증거를 알고 있었기에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사람들의 활동에 넘어가서 바울을 불신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무자격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자격을 변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처럼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모습이 고린도후서 장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과 열매가 추천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이 누구의 추천서도 필요 없는 이유

바울이 누구의 추천서도 필요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편지(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2-3절).

여러분, 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통해 변화시킨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쉽겠습니까? 명망 있는 사람의 추천서는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통해 변화된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추천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바울에게 “문서로 된 추천서를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추천서를 원하십니까? 그대들이 바로 나에게 대한 추천서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 사람이 변화된 열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교회에 역사하셔서 변화된 그들의 삶 자체가 자신에 대한 자격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격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너희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자신에 대한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의 역사, 고린도 지역을 다닐 때 나타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복음 전도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가장 변화했지만 가장 음란했고, 가장 퇴폐했고, 하나님 없는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어떻게 고린도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격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교회는 다른 교회에는 없던 은사들이 나타나서 은사의 진위를 판별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고린도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째, ‘바울의 섬김을 통해’ 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자신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섬김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면에는 언제나 섬김이 있습니다. 종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잠시 임했다가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의 섬김의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성령사역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간절히 구하지 않았더라도 진정한 섬김의 태도와 마음을 가진 이를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한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사역자의 모습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타이틀(Title)이 아니라 타올(Towel)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수건을 두르시고 씻겨주신 섬김의 상징이 타올(수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잠시 고통받고 죽으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속에 오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이 되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모든 과정이 섬김의 여정입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했듯이, 바울의 섬김을 통하여 고린도교회에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모든 성령의 역사가 섬김을 통하여 임하는 대상은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체의 마음 판’에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의 역사의 대상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모세의 시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였지만, 그 율법이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는 지식의 영역에만 머무르고, 그 지식을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데 그럴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왜곡됐고, 부패했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14면에 계속)**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을 맞았다. 전 지구적 감염병 유행은 교회의 문을 닫게 했고 이를 통해 신자들은 예배와 모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는 중이며 뉴노멀은 노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코로나19가 교회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디어 활용이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정착하면서 교회는 온택트 사역의 기회가 열렸다. 이런 가운데 CGNTV는 다음 달



기독교 콘텐츠 플랫폼 ‘풍당’⁽¹⁾
내달 론칭 이재훈 CGNTV 이사장

15일, OTT(Over the Top) 서비스인 ‘풍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론칭한다. ‘풍당’은 빅데이터와 영상진단지를 활용해 개인에게 맞춤 콘텐츠를 추천하고 제공한다. 또 개방성을 가진 플랫폼으로써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섹션도 제공된다. 국민일보의 지난 12일 CGNTV 이사장이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를 만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건강한 온라인 맞춤 양육 콘텐츠에 ‘풍당’ 빠져 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느낀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루시는 재난이라 생각한다. 이 재난은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처럼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통치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엔 하나님의 두 가지 선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우선 세상을 향해서는 마지막 종말에 대비해, 그 징조를 점장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해서는 코로나19는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다. 교회 스스로 할 수 없는 개혁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 교회 존재 의미를 고민했으며, 선교나 헌금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종의 키질을 하신이라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풍당은 구독자의 신앙·성향에 따라
AI활용 추천 영상·자료 맞춤제공
내달 15일부터 모바일 앱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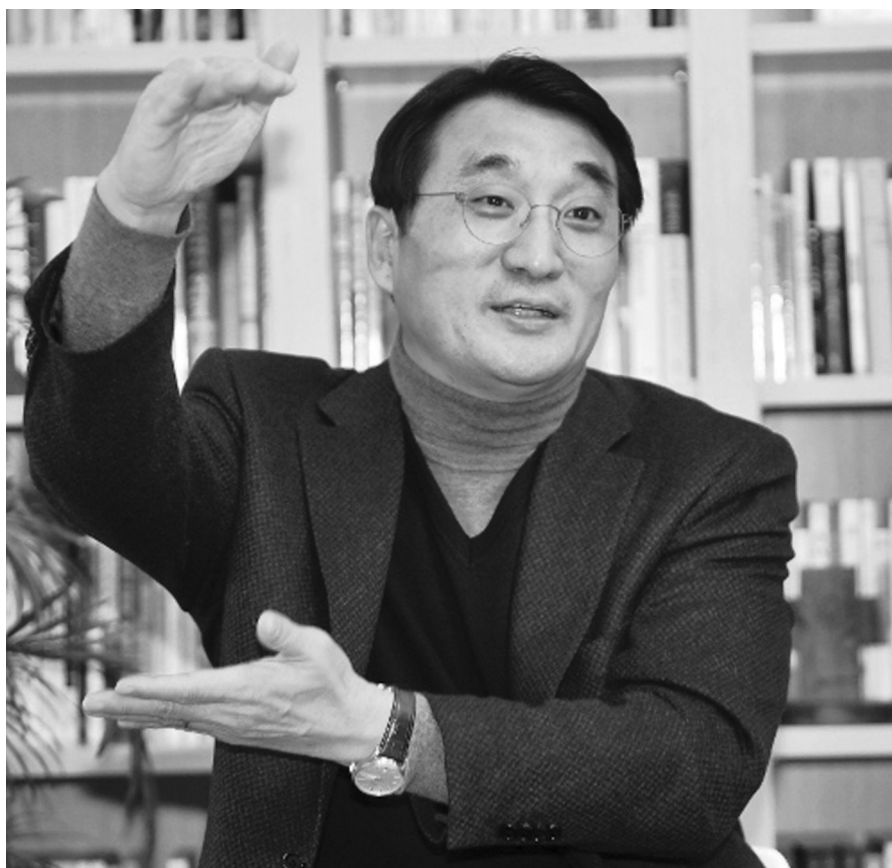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역설적으로 모이지 못해서였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하겠지만, 동시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만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감지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가 불가피해지면서 한국교회의 미디어 활용은 적극적으로 변화됐고 비교적 잘 대처했다. 교회마다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교회가 디지털 세상에 뛰어들었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적극적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이번엔 발견한 가능성은 무엇인가.

“4차산업혁명시대가 이전부터 도래했지만 교회는 거리가 있었다. 교회는 미디어 자체를 터부시하고 불필요하게 여겼다.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으나 주로 설교 방송이었다. 반면 이단·사이비 단체는 미디어 친화적이었고 신천지의 경우 이를 통해 그들의 활동 영역을 강화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는 강제적으로 미디어 환경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동안 각 교회와 단체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내놓았고 특히 젊은이들과 적극 호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대형교회들만 보더라도 구독자 수는 재적 교인 수를 훨씬 능가한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는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역교회들의 기능이 과편화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기독교인 신앙 형성에는 교회에서의 예배 교육 공동체 나눔·선교 등이 필요한데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가 아니



CGNTV 이사장이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교회 담임목사실에서 기독교 콘텐츠 플랫폼인 ‘풍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라 미디어를 통해 이를 충족하면서 지역교회 사역이 과편화된 것이다. 성도들은 출석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할 수 없다. 헌금도 자기 교회에 한다. 따라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유지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게 눈에 띄는 변화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양한 신앙 관련 영상을 접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도 하나의 변화다. 교회 사역이 개교회 중심에서 연합 사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교회 기능의 파편화 현상을 짚어주셨다. 그러면 지역교회들은 쇠퇴하게 되나.

“지역교회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지역교회들이 이런 파편화 현실을 받아들여 자기 교회만의 특화 사역을 계발해야 한다고 본다. 기도 집회 교육 선교 등 다양한 사역 영역에서 지역교회만의 특화된 사역을 뽑아내 다른 교회와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연합에 적극 참여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극명한 차이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달 CGNTV가 론칭하는 ‘풍당’ OTT서비스는 디지털 세상의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

“풍당은 교회의 파편화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양육에 집중하는 것이다. 유튜브는 구독자의 선호도에 따라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적으로 보여주는 게 단점이다. 구독자가 영상을 한번 잘못 선택하면 계속 그런 영상의 늪에 빠진다. 그런데 기독교 콘텐츠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마땅히 봐야 할 것을 접해야 한다. 풍당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영적 성장의 균형과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인공지능(AI)을 통해 구독자의 신앙 상태와 성향에 따라 추천 영상과 자료를 공급한다. 일종의 온라인 맞춤 양육 서비스인 것이다. 풍당은 ‘4C’를 지향한다. ‘콘텐츠(Contents)는 클라우드(Cloud)에서, 케어(Care)는 커뮤니티(Community)에서’이다. 성도들은 양질의 신앙 콘텐츠를 풍당을 통해 듣고, 심방이나 돌봄 등은 자신의 교회 목사에게 받는 것이다. 목회자 중엔 이런 서비스를 두고 대형교회에 종속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대형교회가 작은 교회의 밥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게 미디어의 영향력이다.”

-풍당은 목사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

“저는 2000년대 초반 온누리교회 부목사 시절 맞춤 전도를 주창했다. 그때 성도의 양육은 성도 개인 상태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성도의 신앙 성장과 도약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양육은 병원모델이다. 병원은 한 사람에 대한 파일이 존재하고 여

기에 맞춰 처방을 내린다. 교회 역시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 신앙 처방을 해야 한다. 이것이 맞춤 양육인데, 이렇게 신자들에게 필요한 교재와 관련 영상물을 맞춤 제공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풍당이 나오게 됐다. 균형 있는 양질의 콘텐츠, 이단·사이비를 분별해주고 건전한 교회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풍당 서비스이다.”

-코로나19 재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예배나 기도, 교회 건물 활용 등에서 대변화가 불가피하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성도 중엔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생긴다. 예배당 자체가 위험한 장소가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안전한 예배 매뉴얼’이 교회마다 생길 것이다. 평상시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한도로 예배당을 운용하다가, 감염병 확산 시엔 좌석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다. 미디어

코로나로 교인들 다양한 미디어 접하며
지역교회 기능의 파편화 현상 뚜렷해져
풍당 플랫폼 개방 지역교회에 섹션제공

가 가져온 엄청난 변화와 활용은 계속될 것이다. 기존의 교회 시설이 불필요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큰 예배당을 선호하게 됐다. 기존 교회 시설을 공유할 기회도 생겼다. 안전시설이 부족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에 대형교회들이 예배당을 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일예배도 요일별 주일예배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주의 날’ 개념을 유연하게 가져야 공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장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안식일 준수를 날과 시에 집착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목회자의 역할이나 소명에도 변화가 올까. 최근 신학대학원 입학생이 과거보다 줄었다.

“목회 사역에서도 두 가지 패러다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한다. 우선 적극적으로 카메라와 친숙해져야 한다.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개인 유튜브처럼 하지는 것은 아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성을 헤치는 개인 유튜브가 될 필요는 없다. 또 하나는 목회 환경의 다변화로 목회자 자체가 이전보다 수요가 적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중직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단 생계형보다는 소명형 이중직을 추구해야 한다. 성도들처럼 일상의 직업 속에 들어가 목회하는 형태다. 신학 공부만 하고 세상 지식이나 경험 없는 목회자가 가득 찬 교회와, 목사 수는 줄더라도 소명형 이중직 목회자가 많아진다면 각 분야에서 주님의 일꾼은 더 많아질 것이다.”

/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 이 글은 2021년 1월 20일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실린 기사를 전재했습니다.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엄청나다. 그런데 정인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이 입양일까? 결코 아니다.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다. 우리가 정인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김형석 박사(대한민국 역사문화연구원 원장)가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김형석 목사
(대한민국 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역사학박사)

‘정인이 사건’에 대한 문제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히贯彻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소식을 전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축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 일부 아동복지단체 관계자들이 홀트아동복지회로 물려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아동학대인지, 입양제도의 잘못인지 혼선을 빚고 있다.

2014년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2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세 살배기 현수 군이 양아버지 오캘러한의 구타로 사망한 사건이다. 미국 가안보국(NSA)에서 한국 담당부서 책임자로 일하는 오캘러한은 “사위시키려는데 현수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다가 이튿날 오후가 되어서야 현수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공식 사망 판정을 내린 병원 측은 두개골 골절과 체내 출혈, 몸 전체에 걸친 타박상 등 구타에 의한 외상으로 사인을 확정지었다. 담당 판사는 양아버지 오캘러한에 대해 1급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했다. 이것이 ‘입양아 현수군 사망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이 한국과 미국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지만, 양국의 반응이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살인 혐의를 받은 오캘러한의 형량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반면, 한국의 여론은 현수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홀트아동복지회에 책임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그때도 미국에서는 현수군 사망 사건의 본질을 아동학대로 인식했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은 입양제도 문제로 본 것이다. 이 같은 잘못된 인식과 입양에 대한 편견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입양아 수출 1위국이었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심하게 말하면 자기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무능한 정

부와 무책임한 국민이 그동안 우리를 대신하여 수많은 한국의 고아들을 살린 홀트 가족과 입양 부모들을 비난하는 꼴이 된다.

대(代)를 잇는 홀트 일가의 한국 고아와 장애인 사랑

해리 홀트(Harry Holt, 1905~1964년)는 미국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주에서 밀농사를 짓던 농부였다. 1927년 버다(Bertha Holt, 1904~2000년)와 결혼하고 소작농으로 일하다가 가뭄이 계속되자 오리건 주로 이사해 목재사업과 제재소를 운영했는데 큰 사업으로 번창했다. 해리 홀트는 목재사업으로 큰돈을 벌었지만 1950년 심장마비로 죽을 직전까지 가는 체험을 한 뒤 신앙생활에 몰두하게 되었다. 1954년 12월 14일 오리건 주의 유진고등학교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사 43:5~7).

당시 미국의 피난민구호법은 한 가정에서 입양 가능한 인원을 두 명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리건 주 출신의 리처드 뉴버거 상원의원과 에디스 그린 하원의원의 도움으로 입양을 2명으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한 ‘홀트 법안’을 통과시켰다. 1955년 6월 한국을 찾은 홀트 부부는 혼혈아 등 8명의 전쟁고아를 입양하고, 4명은 다른 부모들에게 입양을 추천했다. 10월 14일 홀트 부부와 입양아 12명을 태운 비행기가 미국 포틀랜드 공항에 도착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러 곳에서

을 떠난 남편 해리 홀트의 유업을 이어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이끌었다. 아흔 살이 넘는 나이에도 입양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손수 축하 편지를 써서 보냈다. 버다 홀트는 2000년 삶을 마감했는데, 생전에 경기도 일산에 자신의 묘를 마련할 정도로 한국 사랑이 각별했다. 버다 홀트는 1995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 키스아니 세계 봉사상을 받았다.

버다 홀트가 세상을 떠나자 셋째 딸 말리 홀트(Molly Holt, 1935~2019년)가 그 뒤를 이었다. 오리건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말리는 아버지의 부름으로 한국에 와서 서울 효창공원과 녹번동 일대에서 고아들을 양육했다. 특히 버려진 장애아동에 대한 사랑을 쏟은 그녀는 1975년부터 홀트일산복지타운의 ‘말리의 집’에서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다가 2019년 5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대를 이은 홀트 가족의 봉사는 한국전쟁으로 고통당하던 고아와 장애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었다. 홀트 가족의 품을 거친 입양아는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1세기 접어들어 해외 입양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해외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대안으로 국내 입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내 최대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운영자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지 홀트 가족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홀트 가족이 한국 고아들을 위해 미국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희생하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제공하고, 양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던 정신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인이 사건에 나타난 아동학대라는 개인의 일탈을 마치 입양 가족과 제도의 문제처럼 오도하는 잘못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 당장 입양이 필요한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지키고 보살피서 새로운 엄마 아빠의 품으로 보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한다. 그의 외침은 계속된다.

“우리(크리스천)가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돌봤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보다 더 큰 선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그의 말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홀트에게 진 사랑의 빛을 갚는 일이다.

“정인이 사건에 나타난 아동학대라는 개인의 일탈을 마치 입양 가족과 제도의 문제처럼 오도하는 잘못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 강당에서 열린 월드비전(World Vision) 창시자 밥 피어스 박사의 특별 강연에서 한국전쟁 다큐멘터리에서 본 전쟁고아들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마음만 남긴 채 집으로 향했다. 그날 한국의 고아들을 돕기 위한 구호금을 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큐멘터리 속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들 부부에게는 이미 1남 5녀의 여섯 자녀가 있었지만 한국의 고아들을 품기로 결심하고 농장 일부를 팔아 자금을 마련해 무작정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해리 홀트에게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심장수술을 한 쇠약한 50세 농부가 어떻게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가 한국으로 오는 도중 일본의 한 호텔에서 펼친 성경의 한 구절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입양하는 일에 바치기로 결심한다.

홀트 일가에게 진 사랑의 빛 갚는 일을 생각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돕겠다”는 연락과 함께 입양 문의가 이어졌다. 이 일을 계기로 홀트 부부는 1955년 자신들의 이름을 딴 ‘홀트씨(氏) 양자회’를 한국에 설립하고 본격적인 입양사업에 나섰다. 홀트씨 양자회는 단체 수용방식의 기존 고아원과 다르게 아이들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선물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양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입양 초기에 한 아이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사가 유전병이라고 진단하자, 버다 홀트는 그 아이가 입양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의 집 안에는 그런 병이 없으면서 전력을 다해 아이를 사랑으로 돌렸다고 한다. 이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많은 가정에서 국제 입양을 문의하였다.

1960년 12월 재단법인 ‘홀트해외양자회’로 재설립되어 국내 혼혈아 등을 초기에는 주로 미국에 입양시켰으나 점차 유럽·아시아 등지까지 입양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처음에는 전쟁고아들을 입양하다가 그중에 아픈 아이들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 직접 의사를 고용해서 돌보았다. 1961년 무렵에는 장애아동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일산 탄현리의 농장 부지 7만여 평을 구입해서 새로운 집을 짓고 특수교육과 물리치료 등을 시작하고 홀트일산복지타운을 만들었다. 해리 홀트는 숨을 거두는 날에도 아기 두 명을 안고 와서 담요를 끌어당겨 덮여주고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최후를 맞이했다. 버다 홀트는 1964년 세상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심리학, 정신과 육체(Mind-body problem)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심리학은 그리스어 어원인 'Psyche(영혼)+ology(학문)'가 뜻하는 것처럼 영혼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19세기 후반 등장한 인간의 행동과 심리과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의 한 분야를 뜻한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 영적인 측면과 심리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스트모던의 이론들을 포함하는 현대 심리학을 검토해 보면 세속 심리학과 기독교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세속 심리학의 뼈대를 세운 프로이트, 스키너, 파블로프, 매슬로우, 라캉 등이 모두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고 이들이 현대 심리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신론적 세계관은 초자연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만 세속적 심리학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신(精神)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이 무시할 수 없는 초자연인 정신이 육체와 독립적인가? 혹은 육체에 종속적인가?"라는 질문에 '심신일원론'을 주장한다. 정신과 몸은 하나의 근본적 실체이며, 정신은 육체적 뇌 활동의 부수현상(epiphenomenon)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신호

(vital signs)가 꺼지면 인간에 속하는 초자연적 현상인 자아, 의식, 마음 등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없어진다.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무신론자들이 전통적 윤리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심리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을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자극에 대해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반응하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스키너의 전통적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오직 유물론적 자연주의로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무신론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유교는 무신론이지만 영혼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주역에서 귀신(鬼神)은 각각 음양의 영험한 기운이기 때문에 공경하지만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양의 영이 모이면 혼(영혼)이, 음의 영이 모이면 백(육체)이 되어 혼백이 합쳐져 생명이 된다. 반대로 혼백이 흩어지면 죽음이며 혼은 흩어져서 하늘로, 백은 흩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심신의 독립적 존재와 근원은 인정하면서 생명현상이 유지될 때는 심신이 합쳐져 있고, 생명현상이 끝나면 심신이 흩어지는 것은 유신론과 같다. 그러나 죽음의 결과로 영혼이 소멸하는 것은 심신일원론과 같다. 결국 모든 무신론은 생명이 있을 때는 심신의 일체화를, 생명이 없어지면 영혼은 자취 없이 사라지는 것을 지지한다.

기독교와 이슬람과 같은 유일신 종교는

정신과 육체를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의미의 이분법은 아니다. 성경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의 영혼은 육체까지 포함한 개인의 모든 정체성을 포함하지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의 영혼은 육체인 관절과 골수와는 분명히 분리된 초자연을 뜻하는 것이다. 기독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신이원론은 후자를 의미한다.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신경생리학자 존 에클스 경은 심신이원론이 인간 의식의 여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가 과학자로서 이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개인 정체성의 일관성 유지'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 특히 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자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정체성은 수십 년 전의 자신과 본질적으로 같다. 뇌의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물리적 뇌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정체성의 통일성과 통합성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기억 역시 단일한 정체성의 또 다른 측면인데, 어떤 특정한 기억과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신경세포 혹은 그 속의 물질 사이에 정확한 일대일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리적 뇌보다 우월한 초자연적인 무언가의 존재 즉, '육체에 종속되지 않는 영혼'이라는 개념 없이는 인간의 정체성

과 기억의 통일성을 무신론자들이 설명하기 힘들다.

전통적 행동주의를 비롯한 여러 세속적 심리학 분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유물론적인 물질로만 인간을 바라볼 때, 모든 인간들은 같은 자극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는 기계와 같다고 간주한다. 인간의 선택은 정해진 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에 인간의 죄성을 그 환경을 조성한 창조주의 탓으로 돌리거나 개인이 아닌 환경 혹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로 전가하게 된다.

반면 기독교의 심리학은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인간의 영혼 문제를 제기한다. 프랜시스 셰퍼는 인간 심리의 근본적 문제는 "스스로 피조물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대신 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이라 규정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그 의지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인간이 그 의지를 사용해 불순종을 선택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며(렘 17:9),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시 14:1)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심리학만이 인간의 영혼, 마음, 의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닫게 할 수 있다.

묵상: 정신은 뇌의 생화학 작용의 부산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크리스천을 위한 성상담

인간은 성적인 존재, 분명한 관점을 세워라!

"가끔 성욕이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자위로 욕구를 풀곤 하는데 자위행위가 끝나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듭니다. 죄책감이 들 때면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하고 다시는 자위행위를 안 할 것을 다짐하는데 매번 넘어집니다. 자위행위가 죄일까요?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인간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인간은 성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자신이 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자위행위도 그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 새로운 감정적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인간이 자위행위 이후 경험하는 가장 일차원적 감정은 수치심과 죄책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종종 올라오는 성욕으로 인해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은 이들이 경험한다. 자위행위 이후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회개를 심각하게 하지만 쉽지 않다.

자위행위는 일종의 성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자위행위는 사연인의 고민처럼 죄일까? 자위행위는 "드라이한 성행위이며, 성도라면 멀리해야 하는 죄"라는 입장이 있다. 그에 반해 자위행위는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죄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판단을 보류하는 중간적인 입장도 있다. 그런데 자위행위에 대해서 비교적 허용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음란물을 보면서 한다든지, 대상의 분명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는 행위는 불허의 입장을 갖는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개인적인 결단과 결심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위행위를 했다고 너무 가혹하게 자책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서 성욕이 아닌 '음욕'이 자위행위로 흘러가는 패턴은 반드시 멈춰야 할 것이다.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위행위는 스스로 하는 성적행위지만 부부의 성관계는 두 사람이 친밀함을 누린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

신 관계의 즐거움이다. 자위행위는 그런 관계를 통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닌 음란물을 보면서 혼자 하는 성적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위행위로 인해서 죄책감이 많다면 절제를 적극적으로 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마저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자위행위 멈춤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위행위를 통한 짧은 쾌락도 좋은 느낌일 수 있으나, 절제와 멈춤을 통해서 오는 만족감, 성취감, 희열, 승리감은 더한 행복감을 준다. 자위행위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울 때가 있다. 청년들이 절제를 통해 얻는 성취감과 승리를 경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 누구한테 털어놓기 어려운 주제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정죄하지 않는 분위기에서의 나눔과 회복을 향한 열망을 통해 청년들이 죄책감에서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된다.

성욕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이미 제시되고 있다. 기도, 찬양, 경건한 성도와의 나눔, 운동, 취미활동 등이다. 자위행위를 멈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성경에서는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혼(고전 7:9)을 말씀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제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성적인 욕구를 온전히 해소하며 살아갈 수 없다. 결혼 전에 느끼는 성적인 욕구가 있고, 결혼 후에도 또 다른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위행위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이 고민해보고, 더 많이 자문해 보면서 자위행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 성문제 관련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의 사례를 모집합니다(hha0@onnuri.org).**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 예비학
교 부부강사)

2021년 온누리 선교 다짐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소망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시대, 선교환경 변화와 두란노해외선교회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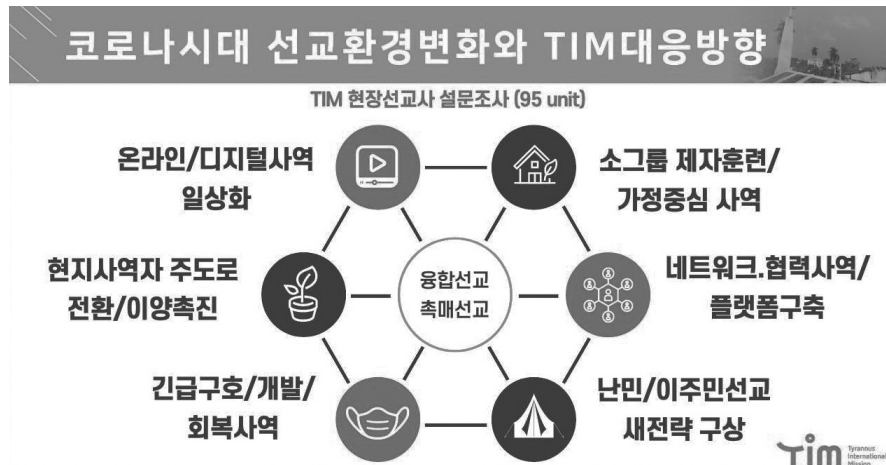
한충희 목사
(두란노해외선교회 본부장)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지 선교사들과 수심 차례 화상회의를 하면서 코로나19가 촉발한 선교환경 변화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한 새로운 선교정책 대응방향을 조사했다. 총 95개 유닛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초로 여섯 가지 새로운 대응방향을 도출했다.

여섯 가지 새로운 대응방향

첫째,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온라인 사역이 일상화되었다. 예배, 제자 양육, 큐티 나눔, 성경 읽기 및 공부, 기도회, 구역예배, 교회 강연, 교회 내부 회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교현장에서도 잠재 회심층에 대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양육까지 가능하다. 디지털 콘텐츠 공유로 인해 시공을 넘어 지역별 네트워크의 동일언어권 타 지역 사역도 가능해졌다. 온라인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소 선교사가 일주일에 1~2번 성도를 접촉한다면 온라인은 4~5번도 가능하다. 또한 같은 시간에 제한 없는 인원이 접속할 수 있다. 섭외가 어려웠던 유명 설교자나 복음전도자를 초빙할 수 있고, 여러 분야 사역자들이 각 지역에서 참여하는 글로벌 옴니버스 예배도 가능하다. 한일청년 라이브 화상집회 같은 쌍방향 온라인 사역도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일대일제자양육, 융합선교, 청년 대상 복음 내려티브와 스토리텔링 발굴 등 양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과 CGNTV의 미디어 라이브러리 같은 온라인 사역 콘텐츠를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성도를 기다리는 ‘come’에서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go’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접촉에 의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칭하는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접촉과 접근(reach)이 가능하기에 ‘미전도’의 선교신학적 관점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는 소그룹과 가정단위 사역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대규모 집회는 금지하지만 10명 이내 모임은 관대하므로 온오프라인 예배 및 모임을 적절히 배합한 하이브리드형도 좋다. 교회가 커지면 원심력으로 확대되는 속성이 있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대일로 가르쳤던 것과 같은 제자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소규모 예배로 전환되고, 일대일제자양육과 셀,



두란노해외선교회가 코로나시대 새로운 선교정책 방향을 조사해 6가지 대응방향을 도출했다.

순모임 등이 활발해지고 큐티 나눔도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소그룹사역이 커질 것이다. 전도도 대규모 집회보다는 소규모 맞춤형 전도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선교의 포커스가 이전에는 개인이었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서 전도와 양육, 예배 등이 가정 중심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불가피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가정 중심이기에 이러한 인도하심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현지 사역자 주도로 전환 및 이양이 촉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과 비자발급의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사역의 주도권이 현지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교회의 이양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양은 적절한 환경, 상황, 시기가 관건인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현지 사역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교회를 이양받게 될 리더십에 대한 집중적인 제자 양육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현지 사역자들은 행정적이고 법적인 제약에서 자유롭고,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온오프라인 사역,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역 등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착근(뿌리내림)이 안 된 상황에서 조급한 이양은 교회를 흔들 수 있고 그 반대는 자립의지와 주인의식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자치, 자립, 자전’ 네비우스 원리 토착 선교를 강조하고, TIM 파송 선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거점에 현지 사역자 훈련센터 설립해서 현지 사역자들이 더욱 전문에 나서고(운전석에 앉고), 외국 선교사들이 돕는(조수석에 앉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선교사가 촉진자(facilitator)이자 촉매자(catalyst)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역 및 플랫폼 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지교회, 선교 기관, 한인 및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 내 파송 교회와 여러 선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다. 온라인 전략대화와 선교 동원, 세미

나, 콘텐츠 공유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와의 네트워크와 해외비전교회와의 협력도 좋은 모델이다. 교회 개척, 전도, 제자 양육, 직업훈련, 구호 개발 등에 있어서 네트워크와 협력 선교가 중요해졌고,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난민, 이주민 사역은 중동, 유럽, 페르시아, 터키, 중앙아시아 등 여러 지역과 민족, 현지 교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을 높일 수 있다. 체류자격, 직업훈련과 교육, 인도적 지원, 난민 교회 현지 지도자와 동역, SNS를 통한 사역 등의 플랫폼 사역이 부각되고 있다. TIM 사역의 중심인 전략팀(Strategic Team)사역도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선교사 행동 제약과 장기간 사역지 이탈로 백업해줄 수 있는 팀 내 다른 사역자가 필요해졌다. 선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온누리교회의 각 부서 및 기관들과 현장의 필요, 본부가 지원 가능한 수요-공급의 콘텐츠 매트릭스를 구축해서 융합선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총체적 선교와 위임적 사명

다섯째, 긴급구호와 지역개발 등을 통해 총체적 선교와 회복사역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healing). 인도적 지원은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의 긴급구호로 TIM은 100여 유닛을 통해 선교지 지역주민에게 생필품과 식료품 및 방역 도구 등을 지원하였다(1차 \$86,375, 2차 \$147,839). 긴급구호는 순수한 긍휼과 공감과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이슬람권에서 모스크 예배와 공개적 기도와 라마단이 중단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도 감지되고 있다. 성도들의 실직과 사업장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커서 장기화될 경우 우려스럽다. 개발과 소득증대로 복음 전파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교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나님

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세상,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 구속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선교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상정하는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복음의 접촉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난민 및 이주민 선교의 새로운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현재 정착해서 살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난민들에 대한 복음의 자유로운 접근은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난민과 이주민 선교에 특별한 관심과 전략이 필요하다. 각국은 자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최우선적인 리소스를 투자하므로 난민 지원에는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난민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법적 지위를 돕고, 다양한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위생 보건과 일자리 등 기본적인 인도적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도적인 차원(생활환경 개선)과 복음적인 차원(영혼 구원)을 병행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난민과 이주민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TIM은 선교사들이 제시한 여섯 가지 주요 선교전략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다듬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하나의 주제로 모든 TIM 사역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전략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다 깊은 난상토론(brainstorming)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선교환경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와 전략을 나눌 것이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함으로써 의기소침하고 약해진 선교역량을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50여 개국에 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소망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소명과 부르심에 나서고자 한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고(행 4:12),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롬 1:16). 그분은 역사(history)를 자신의 이야기(His Story)로 만들어 섭리와 목적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진두지휘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위대한 선교(mission)의 위임적 사명(commission)을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며, 결코 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웃사랑'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2020 엔젤트리 후일담

엔젤트리 선물을 받은 사연대상자들은 너무 뜻밖의 선물이라 '나는 이런 물건 산 적이 없다'며 선물을 되돌려 보내기도 한다. 엔젤트리 선물이 반송돼서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다시 보내는 헤프닝도 있다.

기억에 남는 사연은 교도소에서 어머니의 선물을 요청한 아들의 사연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이 아드님의 사연을 뽑아 어머니께 선물을 보내드렸다. 어머니는 선물을 반송했고 엔젤트리 사역팀의 설명에도 "난 아들이 없다"며 선물을 받지 않으셨다. 노인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 아드님의 사연을 읽어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셨다.

엔젤트리는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도 한다. 재소자 남편의 신청을 통해 선물을 받은 아내가 "정말 남편이 신청한 사연이 맞냐"며 전화를 주셨다. 남편과 연락이 끊겨 걱정이 많았다고 했다. 남편이 직접 쓴 글을 보내드렸더니 반색하시며 재소기관을 통해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으셨다.

한 성도님이 신발을 선물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 그런데 신발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 눈 쌓인 골목 기울어진 철문 안 쪽방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검정 비닐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온 2020 엔젤트리 감사편지.

담긴 신발을 건네주며 "필요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성도님은 겉옷도 입지 않은 어린 아이의 모습에 놀라 열린 아이를 집으로 들여 보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게 아차 싶으셨다고 한다. 성도님은 주변 상가에서 빵과 케이크를 준비하고 어르신이 드실 수 있는 곰국을 포장해서 다시 쪽방으로 찾아가 아이를 불러내 선물을 전달했다. 여전히 겉옷을 입지

않은 아이가 뭔가를 받는 게 생소한 듯 놀라며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그 성도님은 어르신의 마음도 따뜻했으면 좋겠다며 후기를 전해주셨다.

수천 건의 사연을 받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들도 있다. 어떤 물건들은 품질되기도 한다. 배송이나 관리가 어려운 생물이나 더러 고가의 물건들도 있다. 한번은 어르신께 시들

지 않는 화분을 선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접수됐다. 보통은 다른 선물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엔젤트리 사연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자기가 후원자가 되겠다며 직접 어르신께 화분을 전달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주문한 선물이 품질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오프라인 매장을 돌아다니며 그 선물을 구해서 보내기도 했다.

매년 다양한 이유로 수십 건 정도는 선물 배송이 되지 않기도 한다. 그럴 때는 엔젤트리사 역팀에서 직접 선물을 구매해서 배송하는데 이 비용도 성도님들이 현금으로 채워주신다. 올해는 한 기업에서 200만 원을 후원해 주셨다. 꼭 필요하지만, 고액이라 성도님들께 의뢰하기 어려운 사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연말이 지나면 여러 곳에서 감사인사와 편지가 온다. 올해는 한 보육원에서 후원자님들께 꼭 전해달라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묶음으로 보내주셨다. 2020년 엔젤트리는 예쁜 마음이 담긴 편지를 후원자님께 전달하면서 마무리됐다. 사연을 접수하고, 선물을 보내고, 기도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 최혜옥 사역자(사회선교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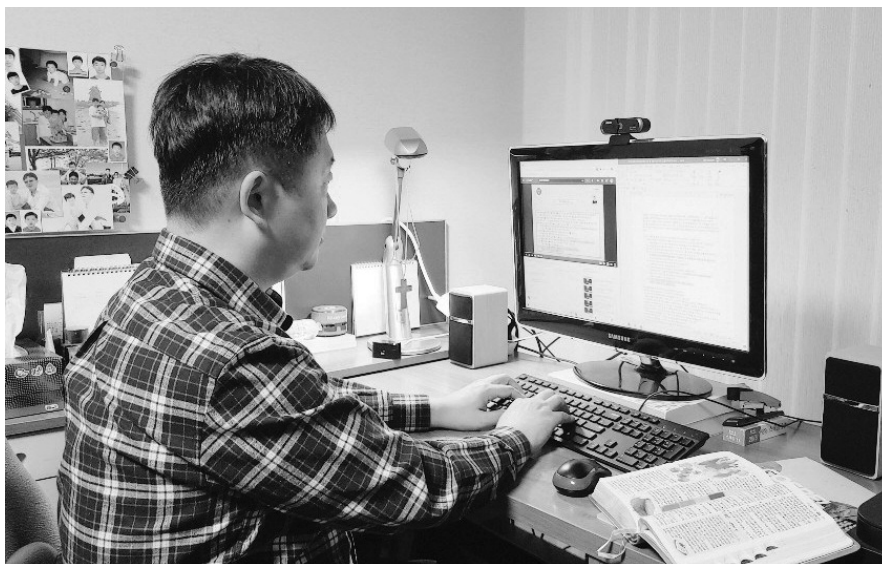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이하 가스펠 프로젝트)을 시작할 무렵 나는 참 교만했다. 주일학교 때부터 술하게 들었던 예수님의 비유 설교이기에 성경의 사건들을 복습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강의를 들을수록 말씀이 꿀보다 달게 다가왔다. 강의를 하나씩 듣고 곱씹으며 어릴 적 불렀던 찬송가가 떠올랐다.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가사에 공감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나는 강의를 듣는 학생이며 관찰자, 제3자의 입장이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관조하듯 듣고 읽을 때만 해도 '나는 옥토 밭이 되어 주님 말씀을 잘 받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겠다' 정도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강의부터 말씀이 나를 흔들기 시작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아 예수의 핏값으로 살게 된 내가 무자비한 종처럼 작은 것에도 분을 내고, 평생의 원수처럼 척을 지고 살아가고, 작은 것에도 관용하지 않고, 내 것은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 강박했음을 돌아보게 하셨다.

가스펠 프로젝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한 마디 말씀, 한 단 글자도 놓칠 수 없어서 동영



임근삼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가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노트를 정리하고 있다.

상 파일이 올라오는 대로 강의 본문을 채록하기 시작했다. 음성을 인식하는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초안을 추출한 다음, 특정 구간을 두세 번씩,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본문을 음성에서 글자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1차 추출하고 2차로 정리한 다음 원어 성경 문장이나 예시로 사용된 역사적 사건

의 인명 등을 찾는 3차 수정과 확인을 거쳐 강의노트를 완성했다. 그렇게 정리한 본문을 가스펠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지체들과 공유했다. 신원석 목사님의 너그러운 이해와 지지 덕분에 강의가 끝날 때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공생애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

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다. 실수와 오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지 고민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있는 아이로의 딸을 깨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나홀로 만에 일으켜 세우셨다.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와 기적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를 향한 역사로 받아들이게 됐다. 가스펠 프로젝트 과정이 끝날 무렵 장인상을 당했다. 동역했던 공동체와 지체들의 위로를 받으며 무사히 상을 마칠 수 있어 감사했다. 마지막 12강과 13강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는 귀한 내용이었기에 한없이 감사하고 기뻐했다. 이 사야 선지자가 대언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은 내 피붙이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들"이라고 공연하고 계신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어두운 이 땅에서 기적이 일상이 되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 임근삼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2021년 목회사관학교가 1월 19일~2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21년 목회사관학교 시작!

**2월 23일까지 온라인(Zoom)으로 실시
목회자 421명(전임 232명, 파트 189명) 참석**

온누리 목회자들의 축제 목회사관학교가 지난 1월 19일 온라인(Zoom)으로 막 올랐다. 목회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비전과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동역의 기쁨을 만끽하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다.

첫날인 1월 19일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 421명(전임 232명, 파트 18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 미래 목회’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온누리교회는 선교적 교회, 미디어 플랫폼 교회, 이방인을 품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세상 속에 교회의 능력과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올해 목회사관학교는 오는 2월 23일까지 5주 동안 더 이어진다. 1월 26일 케빈 목사 ‘새들백교회 온라인 캠퍼스’, 2월 2일 R.T. 캔달 목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 영성’, 2월 9일 이재훈, 이인호, 유기성 목사 패널토의 ‘코로나 시대의 목양’, 2월 16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미래사회변화 대처’, 2월 23일 박세업 선교사(모로코 선교사, KOICA) ‘선교적 영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두란노어머니학교 상반기 개설 신청

2021년 상반기 두란노어머니학교 개설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 교회나 단체가 대상이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관공서와 기업, 다문화센터, 교도소 등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개설을 희망하는 교회와 단체는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물품 및 개설 메뉴에 있는 ‘개설 신청하기’란을 클릭하면 된다.

문의: 02-2182-9114

6기 비전통독 온라인 세미나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통독할 수 있는 6기 비전통독 세미나가 2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강의를 (비전통독), 〈말씀 관통 프로젝트〉저자 조상연 목사(조이교회 담임)가 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를 홈페이지(www.duranno.com/biblecollege)에서 주차별 동영상 게시일로부터 2주 동안 시청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75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 모집

해외개발, 홍보, 르완다 KOICA 사업 총괄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해외 개발, 홍보, 르완다 KOICA 사업 총괄이다. 해외개발 사역자는 5년 이상 아프리카에서 농업, 지역개발, 지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 사역자는 국내외 홍보와 후원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르완다 KOICA 사업총괄

사역자는 르완다에서 ‘ICT기술을 활용한 여성 가장 가구 극빈 상태 개선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271-2246

/ 김영선 기자

“생명나눔의 기적을 응원합니다!”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할인 이벤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응원하는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헌혈증이나 인증 사진을 제시하면 구입한 제품가격을 10% 할인해준다(일부 품목 제외). 두란노서점 할인 이벤트는 ‘생명나눔의 기적’이

진행되는 4월 3일(토)까지 이어진다.

서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02-796-2310)나 문자메시지(010-3229-2310), 온라인(www.duranno.com/store/onnuri)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의: 02-796-2310

차세대 새친구 온라인 등록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온라인으로 새친구 등록을 받고 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에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를 작성하면 된다.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는 온라

인(<https://forms.gle/khhe9wSjKyDCHvRp8>)으로 접속해서 작성하면 된다. 소속 캠퍼스, 학생 정보, 대표 보호자 정보,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꼭 입력해야 한다.

문의: 02-3215-3521

군선교팀, 마스크 15만 장 전달 예정

5개 사단 훈련소, 해군 교육사, 공군 교육사

군선교팀이 올해 군부대교회에 마스크 15만 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2월 9일 5개 사단 훈련소, 해군 교육사, 공군 교육사에 15만 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육군훈련소에 마스크 1만 장을 후원했다.

안상현 대표장로(군선교팀)는 “국방부에서 장병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중보기도와 군부대교회 마스크 지원

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올해 군선교팀은 55만 군장병의 복음화를 위하여 ‘CGNTV 드림은 플러스 장비 지원’, ‘군인 교회 유튜브 영상 촬영 장비 지원’, ‘군종 목사단 및 민간인 선교사 초청 교육 세미나’ 등의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원: 온누리교회 군선교팀(하나은행 573-91003-56705)

문의: 010-4227-584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상담센터,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

화상(Zoom)또는 전화상담, 구글폼 상담신청서 작성

온누리상담센터에서 화상 및 전화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심리상담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구글폼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담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이메일, 상담 경험, 원하는 상담 주제, 가능 요일, 방법(전화, 화상) 등을 기입해야 한다.

온라인 상담은 Zoom을 활용한다. Zoom 사용이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상담센터에서는 대면상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온라인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02-793-2997(서빙고),
02-570-7536(양재)

〈구글폼 주소〉
서빙고 <https://forms.gle/xEYaDpwSjRoEnbxNA>
양재 <https://forms.gle/zVy8FH6WM6fGBQVn7>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

1월 24일과 31일 유튜브 영상 강의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이 1월 24일과 31일 유튜브(개별 링크 전달)로 진행된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에서는 이기훈 목사와 노희태 목사가 자녀 이해하기, 자녀와의 대화법, 어린이 일대일 교재 활용법 등을 주제로 강의한

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2주 과정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수강하면 좋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220

/ 김영선 기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비대면 발급

온누리교회가 2020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비대면으로 발급한다. 온라인, 이메일, 전화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즉시발급’이나 ‘우편발송 신청’란을 클릭하면 된다. 이메일(bess0417@naver.com)과 전화신청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발급은 제한된다. CGNTV와 NGO 더멋진세상, 두란노해외선교회 기부금 영수증은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온누리교회 02-3215-3265(3264, 3618, 3253)

CGNTV 02-796-2243, www.cgntv.net

NGO 더멋진세상 02-2271-2248, www.abetterworld.or.kr

두란노해외선교회 032-336-1042, www.tim.or.kr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장원경 성도(강남B공동체)

전도는 명령, 사명, 순종

제작년 하반기 전도폭발훈련 1단계를 마치고 지난해 3월 2단계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고 이리다가 전도폭발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으로 한 학기를 보냈다. 전도폭발훈련 1단계를 마쳤기에 혼자라도 열심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도전문 암기도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혼자서는 쉽지 않았다. 그럴 즈음 온라인으로 2학기 전도폭발훈련이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곧 신청했다. 이번 학기에는 전도전문도 완벽하게 암기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전도의 기쁨과 한 영혼을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다. 코로나19로 염려와 걱정이 앞섰던 노방전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다. 전도폭발훈련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채워주시고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

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도는 은사가 아닌 명령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마땅히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전도계획을 잘 배워야 하는데 전도폭발훈련은 훈련생 한 명 한 명을 잘 훈련된 전도자로 세우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과정이다. 말로만 들었던 전도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해나가며, 전도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다.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누군가의 신앙 성장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크리스천이라면 언제든 전도에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음이 큰 축복이다. 전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함께 영생을 누릴 천국으로 초대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전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가장 좋은 때다. 혹시 망설이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전도 폭발에 동참하여 이 큰 기쁨을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현희 성도(강서공동체)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쳤다는 사실이 놀랍고 꿈만 같다. 주말은 가장 바쁜 날이었는데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에도 도전할 수 있었다.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내가 양육했다. 처음에는 둘째가 집중을 잘하고 잘 따라 주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양육에 “엄마 오늘도 하는거예요? 빨리 끝내주면 안되요?”라며 지루해했다.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보였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도 아이가 싫어하고 지루해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집은 아이가 셋이라 둘째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둘째는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했다. 어느 날은 “엄마! 언니도 동생도 없이 나랑 엄마랑 둘이서만 얘기하고 성경공부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라고 고백했다. 양육할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줬더니 좋아했다. 활동시간에는 십자가 모자이크 예쁘게 꾸미기, 성령의 아홉 가지 샐러드 만들어 먹기 등 다양한 활동을 재미있게 했다. 마지막 양육하는 날 세족식을 할 때 아이가 너무 좋아했다. “엄마가 내 발을 깨끗이 씻겨 주셔서 저도 엄마 발을 씻겨 주고 싶어요”라며 내 발을 씻겨 줬다. 오히려 아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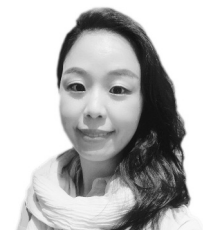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신앙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 아이는 모태신앙이다. 주일학교에서 자라고, 토요일마다 순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큐티도 열심히 하고, 아침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 주며 키웠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나의 마음이 가장 힘든 부분이였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꼭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양육을 하면서 8년 전 내가 받았던 일대일 제자양육이 떠올랐다. 매주 양육자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했던 추억이 있다. 아이와 함께 말씀을 찬양으로 암송하니까 더욱 잘 외워지고 재미있었다. 밥 먹을 때도 말씀찬양을 틀어 놓으면 막내 아이까지 따라 부른다.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귀한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나도 요게벳과 유니게처럼 믿음의 엄마가 되어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OBC 가스펠 프로젝트2 수료 간증



/ 김미림 자매(SNS청년부)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수많은 파도가 밀려왔다. 목마르고 갈급한 심정으로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강의를 듣게 되었다. 강의를 듣는 13주 동안 영혼의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부어져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 목사님께서 주차별 본문 말씀을 풀어 주실 때마다 마치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으로 옮겨지는 것 같았다. 낮고 비천한 자들을 향하신 자비와 긍휼이 나를 향하는 것 같았다.

모든 강의마다 말씀이 특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한 유대인의 이야기다. 나는 사마리아인이 당시 종교와 민족적 이유로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원수 같은 유대인의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 날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한정 짓고 있던 나의 좁은 생각을 깨뜨려주었다. 목사님께서 “돌봐야 할 상처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거절과 경멸을 받더라도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했다. 내게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은 진리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기에 날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존귀하신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귀한 강의를 허락해주신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와 사랑하는 SNS청년부, 매주 생명을 다해 말씀의 꿀을 먹여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다. 무엇보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참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주님께 새 노래로 경배드리기 원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아쿨라, 브리스가 선교사(중동터국)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 A난민센터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스테프들을 통해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난민들의 필요를 조사하며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난민을 위한 사역은 계속돼야 하기에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매일 아침 비장한 각오로 집을 나섭니다. 최선을 다해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결국 저희의 안전과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스테프들과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테프 중 한 명인 나타샤는 시리아 난민으로 무슬림 여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무슬림 여성이 스테프로 있어서 처음에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도할 때 그 자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눌 때 나타샤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 신약과 구약의 차이 등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무슬림 여성과 함께 성경을 나누는 시간이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조금씩 주님께서 나타샤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인 크리스마스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20명 이상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는 방역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 행사를 위해 15명씩 나눠 4번의 축하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과 복음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우선으로 여성 30명, 어린이와 청소년 30명을 초청했습니다. 작은 트리를 만들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 기뻐했습니다.

한 명의 무슬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기회가 그 한 걸음이라 믿습니다. 예비하신 영혼들이 언젠가는 주님께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A난민센터가 난민들의 고단한 삶을 도우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스테프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비대면 시대 일대일 제자양육의 확장(擴張)

하나님이 사위에게 주신 선물



최호림 장로
(동대문중량공동체)

TV가 막 보급되던 시절 사람들은 TV를 ‘바보상자’라 했다. 요즘은 ‘TV뿐 아니라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온다. 이른바 ‘스마트 디스플레이’ 시대다. 이런 문명의 이기(文明 利器)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선용(善用)되고 있다. TV로 드리는 새벽기도회, 인공지능 음성합성 기술을 선용하여 담임목사님이 읽어주는 ‘90일 공동체 성경읽기’도 은혜다.

지금까지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 봐야만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좋은 정보와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매체인 미디어를 선용하여 일대일 제자양육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첫째, 공간적 확장이다.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셨다. 사도들은 회중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했다. 소리가 멀리 전달되는 향아리 구조의 원형 극장이나 음향 확산을 위한 건축물인 고딕 성당도 공간의 확장이다. 교회 본당 뒷자리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과 멀리서 스마트폰으로 듣는 것도 공간이 확대된 예배다.

둘째, 시간의 확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지고, 파피루스, 양피지를 거쳐 종이에 인쇄되어 보관되고 시간이 흘러도 전달되었다. 요즘은 다양한 매체에 저장되어 시간을 확장시키고 있다. 녹음된 설교, 녹화된 설교, 심지어는 소천하신 목사님의 과거 설교영상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도 은혜가 된다.

셋째, 대상의 확장이다. 선교는 각 민족의 언어

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대상을 확장해 왔다. 오늘날 미디어는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불특정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대상도 확대되어왔다. 온누리교회 중심의 일대일 제자양육이 타 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대외사역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까지 확대되었다. 탈북민 일대일 제자양육, 다문화 일대일 제자양육, 이주노동자 일대일 제자양육, 다국어 일대일 제자양육, 일대일을 통한 선교 등 일대일 제자양육을 확대하고 싶은 대상이 많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확장하기 위해 미디어를 선용하는 방법을 세가지 제안한다.

첫째, 미디어 멀미를 극복하는 것이다. 전달하는 도구를 자주 사용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미디어를 활용한 일대일 제자양육 확장의 첫걸음이다.

둘째, 도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익히는 것이다. 본질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도구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디어 도구도 일대일제자양육에 참여하는 각자가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

셋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미디어를 통해 사실 확인되지 않거나 세상 소문을 나르거나 인용할 때는 신중하고 세심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전달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 일대일 제자양육의 확장(擴張)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랜선으로 만나서 멀티미디어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배우는 훈련이다.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는 도구들은 이미 우리가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미디어 선용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일대일 제자양육의 공간이 땅끝까지 확장될 줄 믿는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세상 끝날 때까지 확장될 줄 믿는다.



이은희 권사
(한강공동체)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딸이 결혼했다. 엇그제만 해도 한 지붕 아래에서 부대끼며 함께 했는데, 허전한 딸의 방을 볼 때마다 시원찮은 마음이 밀려왔다. 그럴 때마다 딸의 방을 셀 수 없이 드나들곤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딸의 방이 묵상과 기도하는 처소로 바뀌기 시작했다.

딸이 결혼하기 전 나에게는 예비사위를 위한 기도제목이 있었다. 마음에 사랑이 많고 믿음이 신실한 자녀를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었다. 사위는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결혼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사위가 세례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세워져 있음을 깨닫고 이끌어주시기만을 기도했다. 사랑 많은 사돈어른들께서는 우리 가정의 신앙을 존중해주셨다. 신앙을 존중해주는 사돈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 결혼식을 축하 속에 잘 마치고 사위와 딸이 새 가정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을 때 공동체에서 맞춤형전도집회를 한다고 했다. 공동체에서 평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중보기도 해주겠다고 해서 냉큼 전도대상자 명단에 사위의 이름을 올렸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간절함을 말할 수가 없었다. 공동체와 순뿐만 아니라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기도를 부탁했다.

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 날짜가 가까워 오면서 걱정이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위에게 알려야 하는데 마음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8절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다. “평안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 사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좋은 시간에 말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관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사위를 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에 초대했을 때 머뭇거림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너무 고마워서 SNS로 “사랑하는 우리 사위, 쉽지 않은 대답일텐데 너무 고맙고 고마워”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전했다. 공동체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순원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시고 준비해주셨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기도로 준비했다.

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에 가족과 사위가 함께했다. 그 자리에서 사위가 결심했다.

나는 사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다. 세례를 받으러 교회로 오는 사위의 모습이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사위의 머리에 목사님의 손이 얹어지고 물을 끼얹을 때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사위가 한 가정의 남편이자 미래의 아버지로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위에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시간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사위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크고 잊지 못할 귀한 선물을 주셨다. 이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기도를 통해 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박천중 목사
(길청년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들의 일상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다. 늘 당연한 듯 모여서 드리던 예배마저 모이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다. 온라인으로 만나서 무엇인가를 해낸다는 것은 이벤트 같은 일이었지, 또 다른 일상이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여겨졌던 상황들이 어느새 또 다른 익숙함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말 그대로 모이지 못하는 일이다. 함께 모여 드리던 예배와 순예배가 너무 중요한 일이었음을 그 일이 어렵게 되고 나서야 여실히 깨달아가고 있다. 그

런 현실에서 ‘무기력함’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적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전투를 하고 있기도 하다.

모두 그러하겠지만 나 역시 온누리교회가 새해를 기점으로 함께했던 ‘세 이레 기도회’와 ‘90일의 기적’이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 시간이 우리를 잠식(蠶食)해 가던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깨어나도록 했다.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줄 알았는데 다시 새롭게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 절망만 남겨진 줄 알았는데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시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첫 순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첫 순간이라는 것은 익숙함보다 낯설이 더욱 진한 영역이다. 그 낯설이 때로 경험해보

지 못한 것에 대한 작은 염려나 조각구름 같은 긴장의 여지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설렘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첫 순간은 분명 기대와 설렘이 공존한다. 그래서 ‘첫사랑’, ‘첫 입학’, ‘첫 취직’의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대면(언택트) 상황도 익숙해져 가고 있다. 느닷없이 맞이한 언택트 시대지만, 어느새 낯설이 익숙함이 되어가는 정서와 감정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새롭고 설레는 첫 순간으로 기억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왔던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다. 다만 모양이 다를 뿐이다. 언택트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드러왔던 예배를 다시 드리고, 모여왔던 모임을 지속해왔을 것이다. 요지는 그것이다.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때가 지나면 익숙함의 영역에 머물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낯설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모임을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태도와 결단이 필요하다.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에는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순간도 결코 당연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물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고, 그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은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담겨 있었는가? 매 순간 예배 자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모임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에도’, ‘나중에도’, ‘언젠가는’이라는 마음보다는 이 순간, 이 자리를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로 여기고 소중함을 기억해 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 가까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일강단

〈5면에 이어〉

사람의 추천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지식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6절).

하나님 영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부드럽게 변화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심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엄청난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나 증명서로 증명되는 자원이 아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바로 나에 대한 추천서이다. 나를 통해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 곧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추천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5절).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생각

조차 못하는 상태가 진짜 선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받는지까지 계산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자격 있는 사람이나고 화내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문단에서 쓰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입니다. 바울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대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소명과 부르심이 바울을 움직였던 모든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모함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취 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공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은 옳고 저들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분하여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차고 넘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확신, 스스로 부여한 자격은 어려운 환경과 공격에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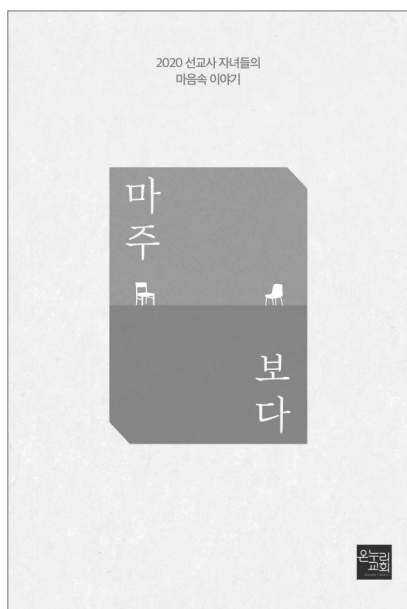
이 시대 교회가 때로 오해받고, 공격받고, 공격받을 만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공동체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그런 확신이 없다면 교회는 시류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교회가 더욱 소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런 기준으로 교회가 무너질 거라면 교회는 벌써 역사 속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시작으로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가 주류였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변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공동체, 하나님께 대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영원한 소망인지, 우리에게 복음을 붙잡고 죽음을 이길 소망이 있는지, 이 세상 모든 시련을 이길 소망이 있는지, 시험과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는지가 바울의 확신에서 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5절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충분하고 넘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공격받고, 비난받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일이 없음에도 공격받으면 바울에게 있었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켜 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거나 추천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충분함이 고난, 시련, 시험,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바울의 확신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사 자녀들의 간증 그리고 고백

내 꿈은 청년선교사!



저는 네팔에서 온 3학년 김소망입니다. 우리 가족은 2015년 네팔에 대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서 힘들어할 때 네팔에 갔습니다. 네팔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안식년을 맞아 지난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언니, 동생, 저 이렇게 다섯 명인데 모두 네팔 이름이 있습니다. 네

팔어로 아빠는 어물려(값진), 엄마는 어누(은혜), 저는 아샤(소망), 언니는 마야(사랑), 남동생은 비스워스(믿음)입니다. 그동안 네팔에서 살면서 재미있었던 것, 힘들었던 것, 제 꿈과 네팔 친구들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쓰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았던 네팔 중서부 지역의 꼬헨벨은 아주 뜨겁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무더운 날씨 때문에 네팔에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더운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선풍기도 돌릴 수 없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꼬헨벨은 날씨가 덥지만 다행히 우리가 살던 집은 조금 시원했습니다. 마을이 예쁘고, 네팔 음식들이 맛있었습니다. 시간은 한국보다 3시간 15분 느립니다. 네팔에도 교회가 있는데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교회도 너무 좋았고, 특히 예배드리고 나서 간식을 주거나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교회에서 언니들과 오빠들이랑 함께 마당에서 뛰놀 때도 있었고, 책을 읽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예쁘기도 하고, 언

제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춤과 노래를 즐기는 사람들이라서 언제나 재미있는 곳으로 기억됩니다.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맛있었던 것은 네팔의 주식인 달밭과 특별한 날 먹는 치킨카레 고기였습니다. 달밭은 네팔의 전통 음식으로 묶은 죽처럼 끓인 콩물에 밥을 섞어 먹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골 마을에 심방 가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찹쌀호떡과 비슷하게 쌀가루를 납작하게 반죽해서 튀겨 주는 음식이 있는데, 네팔의 찌우더리 부족만 먹는 음식이라 그 마을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찌우더리 마을 삼촌이 밭에서 사탕수수를 잘라 껍질을 벗겨주신 것을 씹어 먹었는데 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네팔에서 정말 좋았던 날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호텔에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집보다 덥지 않고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도 있는 호텔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무엇보다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때는 거기에서 단기선교팀(FA) 언니오빠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다가 자고, 호텔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 해주시는 밥도 맛있지만, 호텔에서 먹는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꼬헨벨 호텔 정원으로 나가면 작은 분수가 있습니다. 밤에 보면 더 예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늘 바쁘시지만,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뿌스빠 이모가 있어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역하러 나가시고 집에 없으면 저희들 밥을 챙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네팔은 일요일 하루만 쉬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의 선교 지역인 네팔이 좋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네팔에 사는 동안 제가 되고 싶은 꿈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청년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네팔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소망 어린이(11살, 국내)

* 이 간증은 선교사 자녀 간증집 <마주보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2000선교본부 홈페이지(www.2000mission.org)에서 더 많은 선교사 자녀들과 선교사들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